

‘광프리카’ 한 달... 생활 패턴 무너졌다

‘슈퍼 폭염’ 시대

<1> 활력없는 광주

폭염·열대야 38일 간 이어져
“만사 귀찮아” 무기력증 확산
상가는 한산 나들이객도 급감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됐다. 기존 기록을 모두 넘어선 올 여름 폭염으로 내년에는 그 정도가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광주일보는 ‘슈퍼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달라진 일상, 도시경제·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행정의 대처 방안 등을 시리즈로 실는다.

올 여름 폭염에 한껏 달궈진 광주 도심은 한산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길에서 마주치는 가족과 동료, 이웃의 얼굴에는 짜증을 넘어 무기력한 표정이 역력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바깥 나들이를 꺼리다 보니 식당 등 도심곳곳 상가에도 손님이 뜸해졌다. 평소 북적이던 주민센터(옛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도 민원인이 크게 줄면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선 “에어컨 아래 하루 종일 멍하니 있으니 ‘반 쯤비’가 된 듯 하다”는 농담 섞인 말도 나왔다.

한달 넘는 역대급 장기간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 몸이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이 한달 넘게 지속되다 보니, 몸의 체온과 컨디션 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마저도 지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력증 등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시민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19일 광주시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폭염(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총 38일(16일 기준)로 우리나라 역대 최



서점에서 ‘북강스’ 휴일인 19일, 무더위를 피해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내 대형 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휴식하고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폭염 연속 일수도 지난달 12일 이래 36일(16일 기준) 간 이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 연속기록도 기준 10일(2016년)의 2배를 뛰어넘는 21일을 기록했다.

올 여름 광주에선 기상 관측 이래 최고라는 타이틀을 연일 경신할 정도로 재난급 폭염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광주시가 공식 집계한 온열질환자만 사망 2명을 포함한 109명이다. 집계된 온열환자 외에도 무기력증 등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 의료계에서는 예년에 비해 폭염 관련 이상 증세를 호소하거나 문의하는 환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46·광주시 북구)씨는 “밤낮으로 에어컨만 틀어놓고 지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쭈시고, 머리도 멍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회사에 출근해도 힘이 없고, 근무 의욕도 떨어져 힘들다.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난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시민 상당수가 올 여름 겪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냉방병 등 온열질환의 일종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허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우리 몸의 항상성(恒常性·체내의 환경이 항상 어떤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유지해주는 자율신경계가 자주 망을 흘리게 하는 등 활동 횟수가 많아져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자율신경계에 무리가 가면 항상성이 떨어져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역대급 폭염에 우리 몸도 이상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 시민의 ‘폭염 피로’는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루 수심에서 수백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일선 자치센터에도 폭염이 시작된 이후 민원인의 발걸음에 눈이 띄게 줄었다.

광주 남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33)은

“예전 같으면 하루 1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왔었는데, 지난 7월부터 하루 2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방문 민원인이 없는 대신 전화 문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장로 대폐사검살 맛집으로 유명한 아담식당은 폭염으로 치솟는 재료비에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졌다. 평일 퇴근 시간 이후 꽉 찼던 테이블 10여개가 지난 7월 이후 텅텅 비어 있는 날이 다반사라는 게 주인의 푸념이다. 아내와 단둘이 식당을 운영하는 아담식당 주인은 “8포기 들이 1박스에 1만5000원 하던 참깨추기 현재는 3만원까지 오르는 등 재료비는 경중 튀고 손님은 없어 죽을 맛”이라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아예 문을 닫고 싶지만 흑시나 단골 손님이 울까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종업원까지 고용하고 있는 인근 식당들은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더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도심 속 국립공원으로 여름이면 피서지로 사랑받던 무등산도 너무 더운 폭염 탓에 지난해 대비 여름 탐방객수가 크게 줄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은 24만7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3605명) 대비 17.9%가 떨어졌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또 ‘제동’

한국노총 노사민정 참여 거부... 광주시-현대차 협약 지체될 듯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약 체결이 상당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며 노사민정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광주시가 임금 수준 등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사업 성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는 협약 체결 전 노동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세심한 것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광주본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시에 현대차와의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임금 수준의 향상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월 안에 협상 체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이탈한 상태에서 ‘자동차 업계 임금 절반+교육·의료 등 복지 제공’을 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최대한 한국노총을 설득, 노사민정

복귀시킨 뒤 현대차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노사민정에 불참한 뒤 두 달여 동안 상당한 불신이 쌓인 듯하다”며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참여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계속 만나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 안에 반영할 경우 현대차가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광주시의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결국 고임금 구조인 자동차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민선 6기 4년간 쌓아올린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출범한 광주시 일자리위원회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기 위해 민선 7기 광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일자리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위촉직 위원 3명이 모두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할 형편에 놓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일자리 예산 22조 규모로 확 늘린다

당정청, 고용악화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 고용악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와 중장년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초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으며, 추정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 예산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 예산은 약 22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다시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 4·3항쟁과 ‘잠들지 않는 남도’ ▶18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
- 손에 손 잡고 하나된 코리아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